F1 워밍 업은 끝났다, '성공 레이스' 다시 달린다

'2011 코리아 그랑프리가 오는 10월 14일부터 3일간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암 서킷에서 열린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에서 F1 머신들이 빗줄기를 뚫고 힘차게 질주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지구상 최고의 스피드 축제인 '2011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개막이 2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 3대 스포츠인 F1 대회를 국내 최초로 개최하고도 대회 당일까지 경주장을 완공하지 못한데다, 부실한 마케팅 능력과 안이한 홍보, 컨트롤타워 부재 등으로 '함량 미달'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개최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았던 지난해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게 F1 대회조직위원회의 각오다.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지난해 대회와는 달리,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전남도, 조직위 중심 조직 일원화…혼선 차단

도로 개설·F1 호텔 추가 교통·숙박 대책 만전

수익 창출 주력 홍보·마케팅 활동 업그레이드

◇조직개편-'혼선', '불통'사라지나=전남도는 최근 내년 F1대회를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치르기 위한 조직개편을 공식화했다. 컨트롤 타워가 없어 갈팡질팡하는 등 운영상 미숙함이 고스란히 드러난데다, 성공 개최를 위해 일체가 돼야 할 조직위원회와 대회 운영법인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 간 소통 부재까지 겹치면서 대회 운영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논란을 야기했다는 판단에서다.

주동식 전남도 F1대회지원본부장은 최근 열린 전남도의회의 올해 예산안 및 2010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 F1대회부터는 대회 운영법인인 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의 기능을 초슬림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회조직위원회가 KAVO 대신 F1 대회 준비와 운영 등 핵심역량을 맡는 방식으로 운영구조를 전환하고 KAVO가 맡고 있는 경주장에 대한 위탁·운영까지 제 3기업에게 넘기겠다고도 했다.

◇교통·숙박 등 성공적 개최여건 조성=F1 대회조직위원회는 '관람객들의 불편'을 담보로 했다는 첫 대회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겠다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우선, 교통대책으로 전남도와 F1 조직위는 F1 대회의 주요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확·포장 사업을 추진중이다.

목포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무안군 일로읍 청호리~영암군 삼호읍 서호리·7.2㎞)의 경우 올해 대회기간 중 임시 개통이 가능해 수도권 및 광주 방면 교통 수요 분산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많다.

이 도로는 경주장 교통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영산호를 가로지르는 무영대교(길이 860m·폭 26.2m)를 통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목포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무안 남악신도시를 거쳐 바로 경주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F1경주장 바로 옆을 지나며 영암과 해남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확·포장 공사도 올해 완공, 교통난에 숨통이 트인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목포 고하~죽교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4.1㎞)의 경우 2012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어서 올 F1 대회 기간 완공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목포대교(3.1㎞·4차로)를 통해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목포시내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경주장으로 진입하는 게 가능해지는 만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 개통이 절실하지만 감리단측은 올해 대회 기간 '임시 개통 불가' 입장을 전남도에 전달했다.

조직위는 또 경주장 주변 셔틀버스 전용 차로제를 확대하고 경주장 내 순환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되면 셔틀버스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주부와 고령의 노인들이 5㎞가 넘는 거리를 무작정 걷도록 하는 등 불편을 겪었던 지난해의 사례는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게 조직위 구상이다.

'러브호텔' 논란을 부추겼던 숙박 대책도 한층 나아진다. 영산호 관광단지에 추진중인 '전통 한옥형 숙박단지 조성사업'이 8월 말 완공, 고급형 한옥 숙박시설(21실) 확보가 가능해졌고 광주·순천의 특 1급 호텔도 개관해 600실 정도의 고급 숙박시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 운영됐던 'F1 호텔'(147개)을 광주 지역에도 60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개최 붐 조성과 마케팅 활동 업그레이드=부실한 마케팅과 안이한 홍보 방안 등도 대폭 손질한다. 국내에 인지도가 낮은 생소한 대회인데도 불구, 부실한 마케팅과 안이한 홍보로 수익 창출면에서 '참패'했다는 게 지난해 대회 평가다.

F1 대회조직위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올 초부터 방송 중계권 판매대행사 및 주간 방송사 선정에 나서는 등 집중적인 조기 홍보에 돌입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에서 열리는 대회라는 점에 주목, 자동차 회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마케팅 정책을 조기에 확정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회 세일즈 마케팅과 스폰서십 유치에 매달린다는 복안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올 F1대회 일정과 달라진 점

17번째라운드 영암대회 10월 14일~16일 3일간

'107% 룰' 'F덕트 금지' 머신 중량 증대 등 검토

'고막이 터질듯한 엔진소리와 폭발적인 스피드, 늘씬한 레이싱 걸'

'2011 포뮬러원 월드 챔피언십'(Formula 1 World Champion ship) 시리즈가 오는 3월 11일 바레인 사키르에서 열리는 개막전을 시작으로 총 20라운드의 레이스에 돌입한다.

영암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17번째 라운드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치러진다.

바레인을 시작으로 호주, 말레이시아, 중국, 터키, 스페인(바르셀로나), 모나코, 캐나다, 스페인(발렌시아), 영국, 독일(호켄하임), 헝가리, 벨기에, 이탈리아, 싱가포르, 일본, 한국 영암, 인도, 아부다비, 브라질 등 총 20개 그랑프리가 이어진다. 인도는 올해 처음으로 대회에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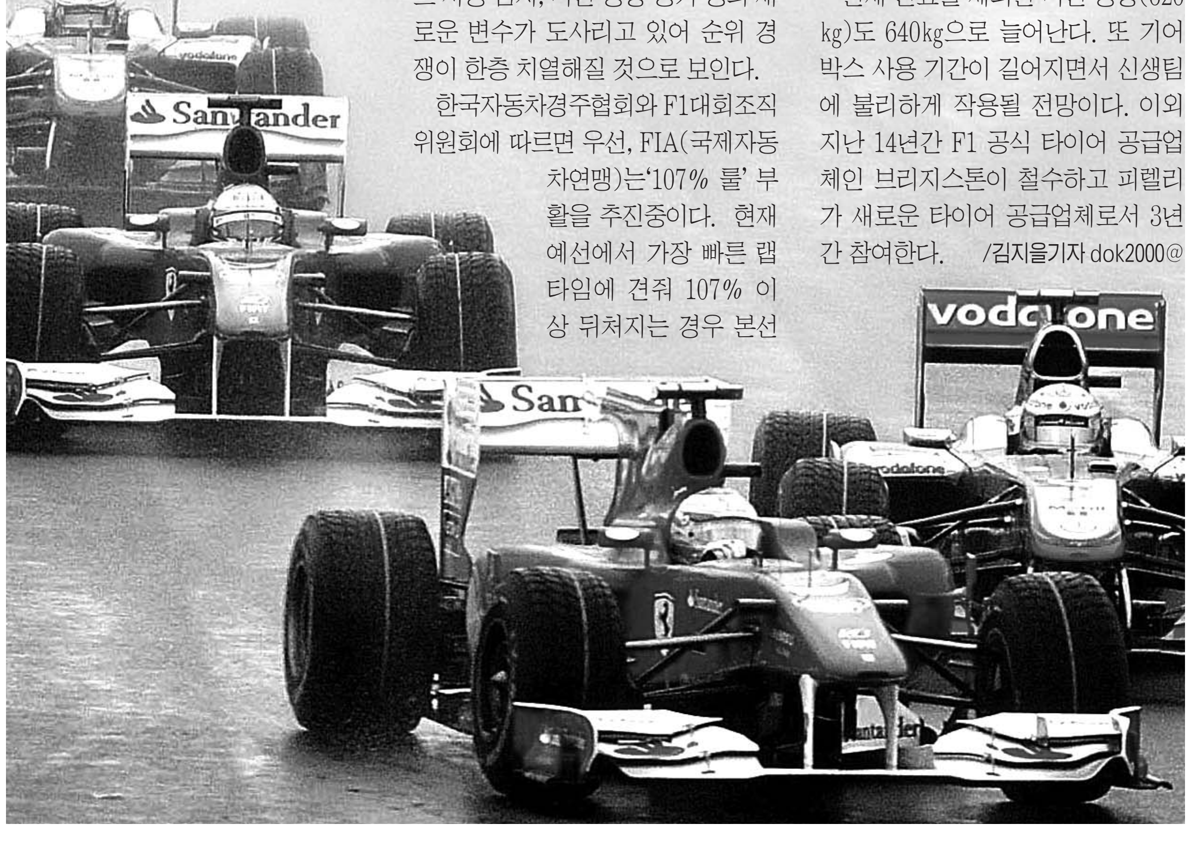
지난 대회에는 모두 12개팀 24명의 드라이버가 참여했지만 올해 대회는 다소 유동적이다. 새롭게 참가하는 드라이버가 생기고 참가 팀의 명칭이 바뀌는 등 변화가 생길 전망이지만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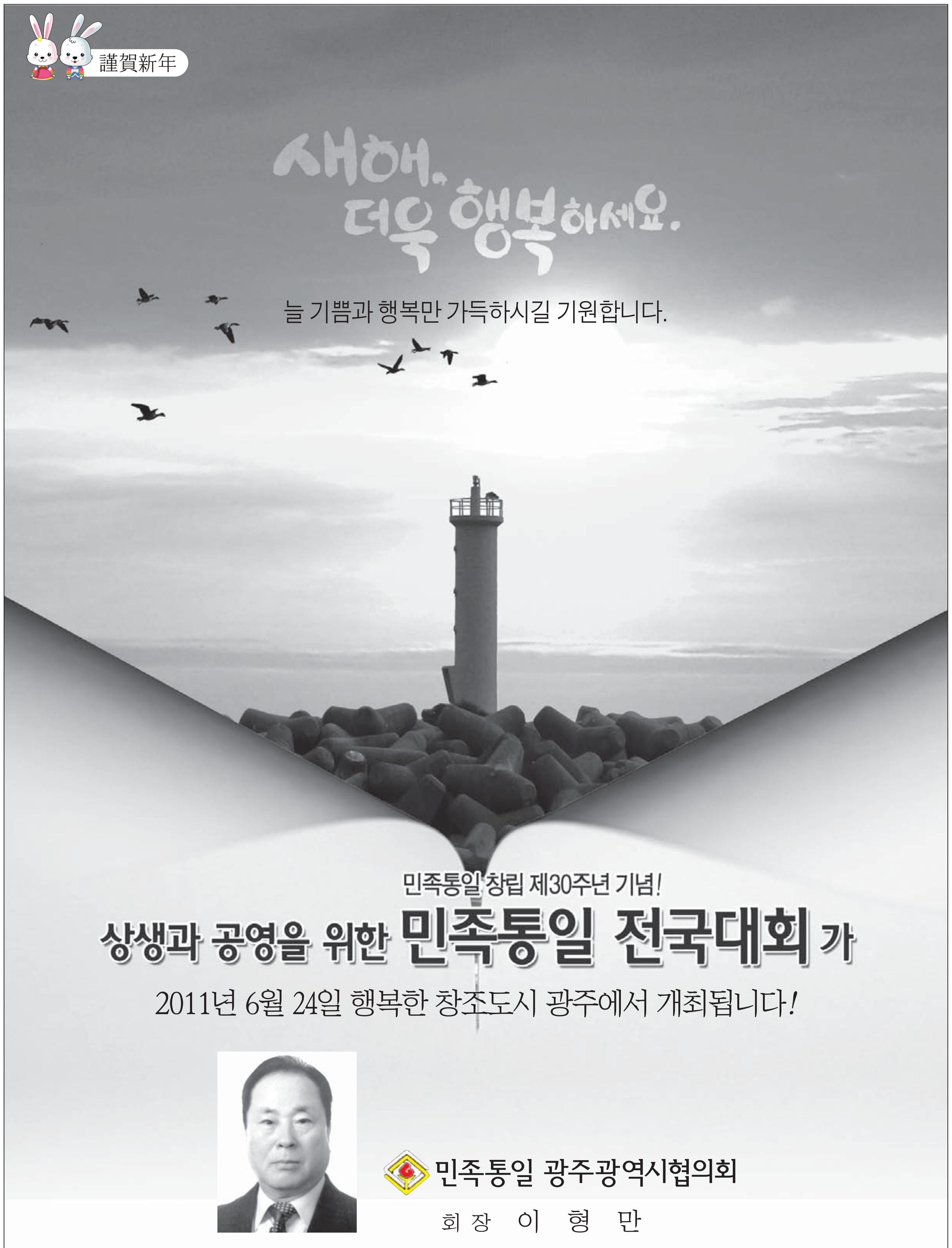
특히 올 F1은 107% 룰 부활, F덕트 사용 금지, 머신 중량 증가 등의 새로운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순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경주협회와 F1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FIA(국제자동차연맹)는'107% 룰' 부활을 추진중이다. 현재 예선에서 가장 빠른 랩타임에 견줘 107% 이상 뒤처지는 경우 본선 참여를 제외하는 규정으로, '지구상 가장 빠른 자동차 대회'라는 명칭에 걸맞는다는 지적에 비해 재미를 반감시킨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지난해 맥라렌팀이 처음 도입한 뒤 다른 팀들도 잇따라 도입했던 'F덕트(F-duct)'사용 금지도 확실시된다. 공기 흐름에 변화를 줘 직선 주로에서의 스피드 향상에 기여하는 장비가 F 덕트다. 즉, 뒷날개로 빠지는 공기 양을 조절, 차체를 아래로 누르는 다운포스(down force·고속주행에도 차체가 지면에 달라붙게 하는 것)를 줄이는 만큼 직선 주로에서의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게 F 덕트다. FIA는 올해 F덕트 사용 대신, 리어 스포일러 각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확정 여부에 따라 팀별 드라이버와 머신 기술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연료를 제외한 머신 중량(620㎏)도 640㎏으로 늘어난다. 또 기어박스 사용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생팀에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이외 지난 14년간 F1 공식 타이어 공급업체인 브리지스톤이 철수하고 피렐리가 새로운 타이어 공급업체로서 3년간 참여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





민족통일 광주광역시협의회 임원단

협회회장	이형만	부 회 장	윤정산	부 회 장	김형국	운영위원	오기주	운영위원	김형숙	서구명예회장	정연호	북구여성회장	조영묵	사무처장	강대의
상임고문	임내현	부 회 장	강봉안	부 회 장	형기우	운영위원	김종귀	운영위원	장현순	남구회장	오기주	광산구상임고문	박석원	간 사	백현미
전국대회 추진위원장	문동주	부 회 장	기수호	부 회 장	이상용	운영위원	김영돈	자문위원장	정인수	사무국장	김상현	여성회장	류은주		
		부 회 장	신보감	부 회 장	고재린	운영위원	이창진	여성위원장	서성례	북구회장	강두원	사무국장	신영욱		
부 회 장	조효일	부 회 장	강중원	운영위원	김종영	운영위원	김창하	동구회장	윤경영	사무국장	이옥님	청년회장	박홍기		